

# 죽음을 넘어 퍼져나가는 '문학적 향기'

채광석·박정만·기형도의 遺稿시집 잇달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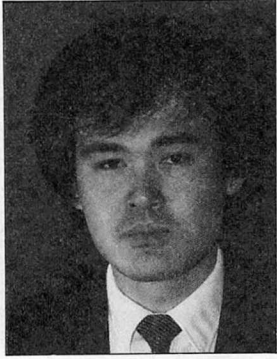
비록 지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았지만 그가 남긴 문학적 향기가 너무 짙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지 않는 시인들이 있다. 채광석·박정만·기형도의 유고시집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애도의 경지를 넘어 우리 문학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채광석



박정만



기형도

80년대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 젊은 시인은 그의 첫시집 제1집 첫장에 "이 유고시집을 ○○○에게 바친다"라는 헌사에 이어 "모든 시집은 유고시집에게 마련이지요"라는 알송달송한,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여 놓았다. 그 당시 살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는 그가, 그것도 자신의 첫시집을 '유고시집'이라고 명명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詩라는 양식이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는 환원불가능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을까. 한편의 시를 이루고 있는 언어는 그 자체가 유일한 언어, 돌이킬 수 없이 말해진 언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일상어의 영역에서 벗어나다. 때문에 시인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편의 시를 완성할 때마다 죽는다. 한편의 시집은 시인의 슬한 죽음을 딛고 일어난 거만한 기념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은유로서의 '유고'시집이 아닌, 현실의 정황 그대로의 유고시집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각별한 바 있다. 천재와 요절의 함수 관계를 둘러싼 여러 신화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채 완성되지 못한 삶이 던져주는 안타까움과 死者에 대한 추억과 애도, 삶의 유한성에 대한 새삼스런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경건하면서도 웅지 처연한 감정의 무늬를 빚어내기 때문이다. 최근 문단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세 시인의 유고시집 역시 산 자들로 하여금 지난 시대의 명암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해지는 쪽으로 가고 싶다'

프랑스에서 까뮈와 롤랑 바르트를 살해한 문명의 이기 자동차가 이땅에선 金洙暎에 이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채광석의 목숨을 앗아 갔다(87년 7월). 직식 직전에 이르렀던 80년대

초·중반의 억압적 상황에서 열정적인 목소리로 민중적 민족문학론을 부르짖었던 그의 문학 세계는 이제 4권의 전집(풀빛)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그 첫째권인 시집「산자여 답하라」엔 고인이 생전에 간행했던 시집「밭줄을 타며」에 수록했던 69편의 시를 비롯, 총 230편의 시를 싣고 있다. 탈을 쓰지 않은 시인의 육성이 그대로 불거져 나와 있는 이 시편들은 그의 삶과 문학 전체가 적의 진지를 향해 돌진해가는 불덩어리였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언어의 가공과 담금질을 일체 거부하고 '투신으로서의 문학'을 지향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채광석과 같은 불의의 사고는 아니었지만 80년대 초반 필화사건에 연루, 고문의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죽은 朴正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시인. 만해, 소월, 영랑, 미당으로 이어지는 전통서정의 맥을 충실히 계승한 그는 가정파탄과 알콜중독의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에서 짝이 트듯' 시를 뽑아냈다. 황동규시인은 그의 유고시집「해지는 쪽으로 가고 싶다」(나남)를 엮어 퍼내면서 박정만의 시를 '서정적 서정시'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서정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 역설, 포괄적 상상력"이라고 불려야 할" 어떤 특성을 지적해내고 있다. 즉 박씨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전통서정시의 한계를 일거에 뛰어넘고 '최상의 정신구조와 한국 서정시의 한 도작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도작점은 곧 그의 죽음과 等價의 경지에 놓이는 것으로, 시인은 표제사에서 '나는 사라진다 /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라고 잠언투로 노래하고 있다.

## 현실과 환상의 이중구조

채광석·박정만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단 한편의 시집도 생전에 내보지 못한 채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떠난 기형도는 그의 시세계가 가진 多意的 울림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의 연구될 시인이라고 하겠다. 「입 속의 검은 잎」(문학과지성사)에 수록된 50여편의 시는 그리 많지 않은 양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유행했던 작품들과 뚜렷이 변별되는 강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정성과 지적 통찰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의 작품은 현실과 환상의 이중구조를 통해 우리 시대 삶의 불구성, 궁핍

함을 날카롭게 떠올린다. 그의 시는 얼핏 고전적 어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치밀한 조각과 공법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서 분석비평을 촉발시키는 많은 유인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의 시는 삶의 종착역에서 서성거리는 한 우울한 젊음의 기록이며, 너무나 많은 것을 일찍 깨달아버린 정신의 피로를 담고 있다. 그의 '죽음'이 발견된 자리—심야프로가 상영되고 있는 삼류극장이야말로 그가 짧은 생애를 걸고 탐구한 모든 것을(어쩌면 해답까지) 말해주는 상징적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세 시인의 유고시집이 과연 문학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아마 좀더 시일이 지난 후에야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사후의 명성을 기대하고 작품을 쓰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시인은 80년대를 이어 90년대에 우리 문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이다. 남진우 (시인·문학평론가)

## 대학동문들이 펴낸 두권의 책

「백양문학」과 「현대문학의 연구」

연세대 출신의 문인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세문학인회'와 '한국문학연구회'가 최근 거의 동시에 각각 문학무크와 평론앤솔로지 의 창간호를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중 문인 중심의 모임인 연세문학인회가 첫권을 선보인 「백양문학」은 윤동주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발표회의 논문 4편을 특집으로 꾸미는 한편, 詩에 정현중·강창민·마광수, 소설에 박기동·박영한·윤후명, 희곡에 오대석·윤대성 등 잘 알려진 문인들의 작품을 집중 수록해 눈길을 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이미 전공을 마친 소장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문학연구회에서는 「현대문학의 연구」 제1권을 펴냈다. 강은교와 김종윤의 詩論, 나병철·조남철·하정일의 소설론, 김영민·서은혜의 비평론 등 각 장르별로 논문을 묶고, 따로이 '이론과 쟁점'이란 제목 아래 이선영의 「문학연구 및 비평의 과제와 방향」, 백낙청의 「언어학적 모형과 문학비



평」을 같이 실었다. 특히, '초대논문'으로 실린 백낙청의 글은 프레드릭 제임슨의 「언어의 감옥」을 주체적으로 비판, 수용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동문'이라는 학연으로 출간된 책들이면서도 일반독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단과 학계에 참신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 대학의 연구동향이나 창작의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끈다.

두 책 모두 역시 연세대 출신이 대표로 있는 '바른글방'에서 출판됐다.